석유화학 중동바람 - ④프로젝트 진행

2005-06년경 세계시장 "흔든다"

중동국가들의 화학산업 육성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변수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첫째는 수백억달러에 달하는 투자자금을 단기간에 조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전문가들은 10억달러 이상의 자금이 소요되는 프로젝트를 복수로 추진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라 현재 합작 파트너를 구하지 못한 프로젝트의 상당수는 계획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둘째는 향후 석유가격의 향방이다. 대부분의 재정 수입을 석유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중동국가들의 특성상 유가가 하락하면 자금 확보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가능성이 낮기는 하지만 유가가 10달러대 초반으로 하락하면 신규 투자자금 확보는 물론 중동산 석유화학제품의 가격경쟁력 우위가 사라지면서 기존 투자자금 회수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변수에도 불구하고 중동 석유화학산업이 장차 세계 석유화학산업에 지각 변동을 몰고 올 것이라는 사실은 대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부 전문기관들이 중동 석유화학산업의 공격적 투자의 여파로 석유화학 경기 사이클이 예전에 비해 대폭 짧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을 정도이다.

즉, 과거와 같은 7-9년 주기의 경기 사이클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우며, 최근의 석유화학 경기 상승국면도 오래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이다.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할 때 중동 석유화학산업 신증설의 여파가 본격화되는 시기는 현재의 경기상승 국면이 끝나는 시점으로 2005년이나 2006년경에는 세계 석유화학제품 수급이 다시 출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중동 석유화학산업 부상에 따라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유럽지역에서는 이미 추가적인 신증설 필요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석유화학기업들이 신규투자 결정에 있어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는 가운데 중동지역과 경합이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투자하더라도 소규모 신증설에 그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한편, 중동산 석유화학제품의 아시아 시장 잠식 우려가 표면화되면서 아시아 생산기업들의 움직임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일본에서는 향후 에틸렌 유도제품의 경쟁력 약화가 예상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중동지역의 영향력이 덜한 프로필렌 제품으로 생산구조를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이를 위해 나프타 분해과정에서 프로필렌의 생산비율을 대폭 끌어올리는 등 프로필렌 확보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2/04/10>